

신임포교사 군포교 현장학습 하던 날

“선배들의 열정 배웠어요”

“장병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인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 내가 있고 우리 포교사가 있으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우렁차게)”
 11월 14일, 늦가을 찬 기운을 압도하는 장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인천 강화도의 무애원 강당. 법문에 나선 이종호(61·현수) 포교사가 해병2사단 5연대 장병들과 신임 포교사들에게 ‘연기법’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마침 성지순례자 무애원을 방문한 경기불교문화원 신도들도 자리를 함께 한 강당은 구법(求法)열기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노래를 부른다. 스님과 장병들이 법회 마지막 순서로 항상 열창한다는 군가를 들은 윤홍련(34·마하연) 포교사는 다소 당황해 하면서도 즐거운 듯 “이렇게 스님과 포교사, 장병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니 당장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무애원을 방문한 신임 포교사 중에는 군 포교와 뗄 수 없는 참가자도 있었다.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전역한 김태복(58·혜천) 장군. 김 포교사는 “상관이 아닌 포교사로 장병들을 만나니 느낌이 새롭다”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포

이론·실무교육 60시간 이수해야 활동 “처지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것” 중요

이날 법회는 ‘선배’ 포교사들의 군 포교 현황을 직접 보기 위해 ‘후배’ 포교사 40여명이 현장학습에 나서면서 마련된 자리. 신임 포교사는 이론교육 30시간과 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군, 교도소,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등의 각분과 포교법에 소속돼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회는 △보려진인 △천수경 봉독 △진언 △정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의 순서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30여 분간 계속된 이 포교사의 법문에 이어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인사말 후 갑자기 시작된 해병대군가. 설봉 스님의 구령과 박수 소리에 장병들

교사 선배들의 열정을 따라 군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정택(21) 일병도 “김태복 장군님을 비롯한 여러 포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현장에 나오시니 반갑기만 하다”며 “동료들에게 불법을 더 열심히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임 포교사들의 현장학습은 법회와 점심공양이후 진행된 강화도 제적봉 격려방문을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현장학습을 마친 신임 포교사들의 표정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비구들이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유행(遊行)하라”고 설한 포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듯 뿌듯한 모습이었다.

강화=유철주 기자



인천 강화도 무애원에서 진행된 법회에서 포교사와 장병들이 ‘천수경’을 봉독하고 있다.

한국불교 포교·수행 거점 될 것

하와이 무량사, 내년 창건30주년 행사 다채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행)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무량사는 먼저 2005년 개산 30주년 기념법회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현지에서 봉행한다.
 개산 30주년 기념법회는 14일 판화가 김경희 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개산 30주년 기념법회 및 대법당 부처님 점안식, 16일에는 20년 불사 회향법회 및 명원전 톨다실 개원식을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17일 김득수 사물놀이패 공연으로 마무리 된다.
 이어 무량사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병조(동국대)·조성택 교수(고려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등이 ‘한국불교와 선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9월 25일에는 무량사 문화원과 노인요양원 개원식, 하와이 시달타대학 개교식이 열린다.
 1986년 국회 정각회와 한국 불자기업인들의 회주, 당시 주지였던 대원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무량사 문화원은 포교와 수행의 종합도량으로 운영된다.
 한인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3500여평 규모로 대법당, 태평선원, 전사관, 명원전 톨다실, 문화센터, 시달타대학, 동서문화원 등이 들어선다.
 대지 300평 지상 2층 건평 300평 규모의 노인요양원은 35개실에 35여명 수용 가능하다. 여기에는 현지 교포 뿐 아니라 노스님의 노후복지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3년 초 미국 서부사학연합회 실

1월 13~17일 기념법회 거행 국제세미나·시달타대학 개교식도 한인문화원·노인요양원 등 개원

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다. 무량사 문화원 설립되는 시달타대학은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 등이 개설되며, 미국 현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 소수정예 형태로 운영된다. 무량사는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생들은 한국불교 포교사로 활동해야 한다. 또 대학원에는 한국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선학과도 개설해 4년 거를 성만할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와이주립대학과 학점교환 등의 교류협정 체결도 추진 중이다.
 도행 스님은 “시달타대학 개원 등을 통해 무량사를 미국 내 한국불교 포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학술연구·생활 격려금 전달

은정장학회, 소년가장 등 54명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11월 20일 서울 태원호텔 만복실에서 ‘제3회 은정장학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 학술연구지원금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2000만원, 단체지원금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불교인권위원회에 각각 1100만원씩 지급됐으며, 장학금은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4명, 초·중등학생 9명에게 8400만원이 수여됐다. 소년소녀가장 11명, 독거노인 3명에게 생활격려금 2400만원도 전달돼 총 1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0월 효령대상을 수상한 지승 스님이 부상으로 받은 2000만원과 망해암 주지 성일 스님이 500만원, 삼막사 주지 성은 스님이 300만원을 각각 기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남동우 기자

강릉 휴휴암 수륙천도재 봉행



강원도 강릉 휴휴암(주지 흥법)은 11월 6~7일 이틀간 휴휴암 앞바다에서 3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천도재 천도재(사진)를 봉행했다.
 용왕 탕화와 위패를 실은 양양 인근 어촌 어민들의 배 33척이 휴휴암 앞바다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이날 천도재는 법회와 국악 살풀이, 중앙승가대 스님들의 신도장구대타라니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흥법 스님은 “천도재를 계기로 선망부모와 유주 무주 고향들을 인도하고, 모든 악업을 소멸해 청정한 마음으로 살자”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제천 송화사

지역 발전·인재양성의 산실



송화사 불교유치원 어린이들이 침선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제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송화사가 유일하다.

송화사는 제천 포교 1번지로서, 지역 불교의 발전을 이끌어 온 선진과도 같은 곳이다. 송화사는 1973년 창건과 함께 곧바로 고등부 학생회를 만들어 청소년 포교에 뛰어들었고, 어린이와 중등부 학생회도 연이어 창립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학생회를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도회 거사회 합창단 등을 통해 지역 불심을 규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시내에 ‘진여원’이라는 포교당을 개설, 제천포교에 박차를 가하면 서 제천 유일의 불교유치원(법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양성의 산실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포교역량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수의 힘을 하나로 모은 총동문회 결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봄쯤이면 총동문회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유마거사회 정예화 사업도 송화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유마거사회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시켜, 언제 어디서든 포교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교교리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불교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마거사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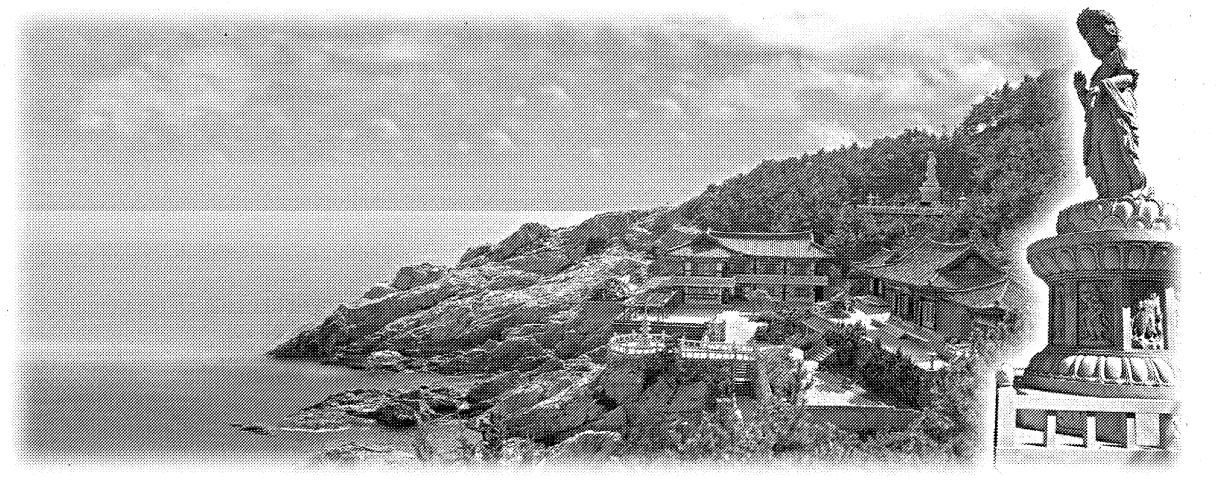
31년 전통 학생회 ‘비리아’ 총동문회 구성 거사회 정예화·전방위 포교사 능력 발휘

송화사는 지금, 국내 최고의 포교도량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송화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등부 학생회인 ‘비리아’ 동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총회를 결성하고, 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유마거사회를 정예화해 포교 동력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도회 휴식 공간을 만들어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창립된 지 올해로 31년이 되는 ‘비리아’는 그동안 각 기수별로 모임을 가져왔다. 기관장, 병원장, 기업체 사장 등 제천에서 웬만큼 잘나간다(가) 하는 유지들치고 비리아 동문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리아는 제천 인재

통해 생활불교운동을 벌일 생각이자. 또한 3~5년 계획으로 수행과 휴식을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수행·포교도량으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송화사 회주 경암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천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다. 88년부터 현재까지 불입종 총무원장을 연임하고 있을 정도로 종단에서의 신임도 두둑하다.
 경암 스님은 “스님이 변화해 신도가 변하고, 그래야 불교가 변할 수 있다”며 “작은 힘이나마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포교기반을 넓히는데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제천=한명우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 자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외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일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오전 9시~ 오후 6시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대)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설할 수 있는 계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계약 체결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한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한후 개원설립시는 특별혜택 부여

○오시는 교통편 *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0미터 조흥빌딩 5층 *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총정로우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한국침구교육원 TEL. 02)393-5111(대) FAX . 02)312-5404